

건축고도 제한 형평성 해결 실마리 찾나

도의회·제주연구원, 내일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인구밀집지역 고도완화 통해 압축 성장 필요 목소리

제주지역 건축고도 제한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최근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고밀도 개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와 제주연구원은 공동으로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 인구증가와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 해소와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나 미래도시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주시 노형동 발전협의회는 노형동 도시계획 관련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고도 제한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형동 준주거지역은 경관 보전 목적으로 건축고도가 35m에 불과한 반면 이 지역과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드림타워는 169m로 준공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제주항을 중심으로 형

성돼 있는 구도심(건입·용담동 등) 주거지역은 고도가 통상 35m로 신도심(45m)보다 낮지만 건물 노후도가 가속화되면서 낮은 집값, 인구 유출 등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어 고도 완화를 통한 압축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 지사도 지난달 16일 열린 도민정책 도민소통 보고회에서 고도 제한과 관련해 "고밀도로 개발할 곳은 고밀도로 개발해야 효율성이 높다"며서 고도 제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와 제주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적정한 고도 제한의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동림피엔디 한승철 이사가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 및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다음으로는 제주연구원 이성용 선임연구원이 '제주지역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제주대 양영준 교수, 하창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회장,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현재 고도지구를 돌아보고 미래 도시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면서 "고도지구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도정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와 부합되는 고도관리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문 전 대통령, 4·3 추념일에 제주 찾을 듯 공식 추념식에 참석 않고 위령제단 참배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일에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 4·3 관련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4·3 희생자 추념일 오후 제주를 찾아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추념일에 제주를 찾게 되면 4·3 희생자 추념일이 된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70주년 추념식에 이어 2020년에도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2021년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맞춰 다시 한번 제주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공식 추념식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엔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대통령의 불참 통보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인 시절이던 지난해 4·3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2공항 도의회서 부동의하면 끝난다"

원희룡 장관 국회 국토위서 관련 질의에 답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모든 절차는 끝난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판단이 마지막 키를 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 장관이) 이를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답변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얻게 돼 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틀만에 환경부가 지정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보완사항을 가지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서 이를 통보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시켰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중국 청도 직항 바닷길 '축각'

오 지사, 어제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와 면담 중국 첫 일정으로 항로 수송 교류 의향서 체결

제주와 중국 산둥성 칭다오(청도)를 잇는 바닷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항과 칭다오항을 직통으로 잇는 여객선과 물류항 개설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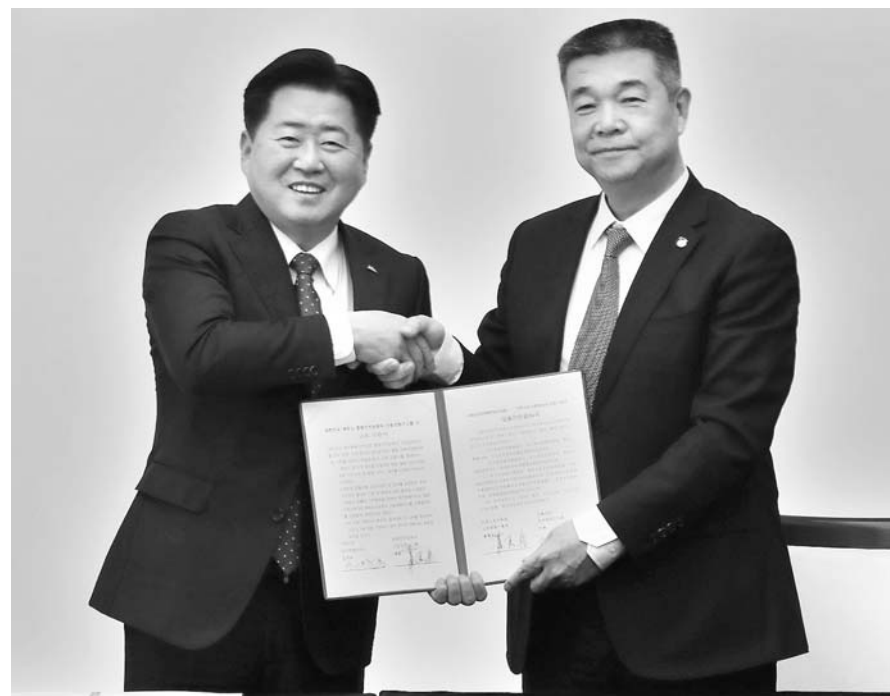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26일 오전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를 방문해 면담을 갖고 항로 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체결된 교류 의향서에는 양 기관이 수출 상품 관련 정보 교환, 무역 활성화 지원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 최고우원 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과 제주와 산둥성 간 직항로 개설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물류 체계 구축으로 교류 확

장을 키우고, 제주의 삼다수(산·수·축산물)를 비롯한 농·수·축산물과 제주 인증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대표 지역인만큼 제주-산둥 간 신규 항로 개설로,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삼다수와 제주 농수축산물 가공품, 제주 인증 화장품을 중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의 우수한 상품도 제주에 수출하는 길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고우원 회장은 "크루즈 여행과 골프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등을 기획한다면 관광이나 물류, 해상 부분의 서비스도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며 양 지방 정부의 교류협력이 한국과 중국의 발전과 인적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 최고우원 회장이 26일 중국 현지에서 항로 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점안 능력, 야적장, 터미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조기 개설이 가능한 직항로는 제주항과 칭다오항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에 항로 개설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한·중 정부 간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해마다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

을 통해 양국 간 협의를 모색할 방침이다.

1892년 개항해 120여 년의 역사를 보유한 칭다오항은 1만8000개 선박을 점안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부두로, 전 세계 20개 선박회사가 칭다오항에 진출했고 130여 개 국가와 450여 개 항구가 국제무역을 전개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도민 경청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3. 29.(수) 15:00~17:00 / 성산국민체육센터

*** 행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피켓, 현수막 등
- 소음을 유발하는 확성기, 호루라기, PET병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23. 3. 9. ~ 5. 8. (필요시 연장)
- 의견제출 방법
 - 현장 제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도 공항확충지원과
 - 온라인 제출: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 우편 제출: 제주시 문연로 30, 공항확충지원과
- 문의처: 도 공항확충지원과(710-4841~4847, 4851~4854, 4741~4742)